

성원전기공업(주) SWECO

주소:(445-893)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4
전화:031-227-2900
팩스:031-227-4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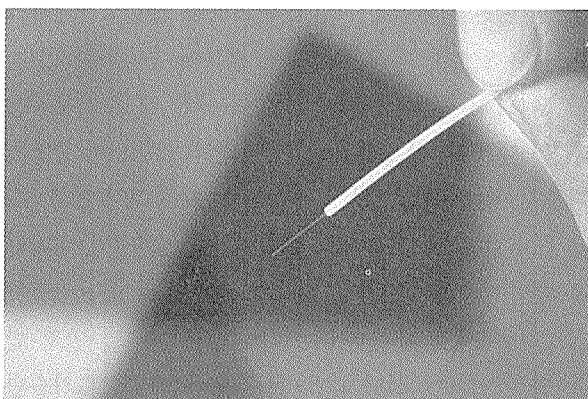
성원전기공업주식회사는 1974년 전기절연물을 국산화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창업했다. 30여년동안 일본에서 절연물을 수입하여 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일본업체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시작했다.

창업부터 성원전기는 성실과 정직을 신조로 삼고 최고급의 절연물을 제조, 공급한다는 철학으로 모든 시장의 부조리와 결탁하지 않고 품질위주의 생산을 했다. 그 당시는 양을 속이는 등 시장의 부조리가 심각하였지만 성원전기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그 결과 1980년 초반까지 확고한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1984년 무역부를 신설하고 1985년 파키스탄에서 처음으로 절연봉의 수출주문을 받고 처녀수출을 하게되었다. 그 후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으나 낙후된 기술과 소량생산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 타개책으로 1985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생산설비의 선진화를 위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기술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인원을 채용하여 외국의 기술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여 시장 정보와 기술정보를 입수하고 입수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보가 10여 년이상 쌓이기 시작하자 개발에 박차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었다. 일본의 어떤 업체에 한 롤에 50미터짜리 절연물을 수출을 했는데 어떤 것은 50미터보다 길고 서너 개가 20센티미터 짧다고 클레임을 걸어왔다. 직원들은 부당한 클레임이라고 했지만 두말없이 일본을 방문하여 클레임을 받아들였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계기의 정밀도를 재 점검하는 등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모든 제품은 규격대로 정확해야 한다는 이치를 배웠고 이것이 품질관리의 기본이 되었다.

이 무렵 마이카 절연물이 일본에서 본격 상용화되자 이를 개발하려고 KAIST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성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술도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일본업체와 1988년 마이카 테이프 및 절연판에 대하여 기술도입을 하고 생산을 개시했다. 그러나 마이카제품 생산에 핵심적인



마이카페이퍼는 자금부족 및 기술이전 거부로 중간재인 마이카페이퍼를 수입하여 후가공하는 초보적인 생산이었다. 이 기술제휴로 인하여 성원전기는 선진적인 품질관리 기법을 전수받고 이를 철저히 지켜나가 3년 만에 선진국 수준의 마이카 절연물을 생산했다. 기술 제휴선도 깜짝 놀랄만한 빠른 적응이었다.

그즈음 한국시장이 확대되자 한 일본업체가 합작으로 마이카 원석을 가공하여 마이카페이퍼까지 생산하는 일괄 대단위 공장을 세우고 마이카 절연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성원전기가 곧 도태되리라고 전망했으나 10여년간의 절연물 생산노하우와 결합된 성원전기는 위기위식을 가지고 전직원이 품질관리와 원가절감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당당히 경쟁을 해나갔으며 1994년에는 역으로 부실화되어 부도난 일본합작업체를 인수하여 시장을 또 한번 놀라게 했다. 후일담이지만 많은 원자재 공급선이 이때 성원전기의 능력에 비해 너무 큰 업체를 인수하자 부도날 것이란 소문이 돌아 원자재 공급을 끊어야 할지를 내부적으로 의논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원자재 공급선에도 그동안 성원전기가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한다.

이때 호주에서 한 바이어가 마이카절연물을 수입하겠다는 제의가 왔으나 솔직히 서양의 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호주에 선풍 응할 용기가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없어 못하겠다는 말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그 대신 가격을 국내가격보다 50%이상 비싸게 견적을 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가격이 아주 좋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자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같이 호주시장에 맞는 제품을 같이 개발하자고 제의하고 개발에 들어갔다. 막연히 유럽권

시장은 힘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으나 의외로 성원전기의 품질수준이 높아 쉽게 시장을 파고들 수 있었다. 바이어를 수시로 방문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하여 호주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나갔다. 90년대 중반에 이르자 호주에서 안전문제가 부각되어 내화전선의 규격을 강화하여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규격을 마련하여 1,029도에서 2시간이상 견뎌야 하는 전선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자 그에 쓰이는 마이카 테이프도 만들어 공급해야 했다. 그러나 성원전기는 이미 시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맞는 제품을 출시하고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때 세계의 우수 업체가 승인을 받고자 시도를 했으나 아직까지 완전승인을 받아 합격한 업체는 성원전기가 유일하다. 이러한 호재를 바탕으로 마케팅에 주력한 결과 내화전선용 마이카 테이프 분야에서 호주시장을 거의 100% 장악하게 이르렀고, 이러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등 유럽계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다.

이미 시장에서 성원전기 제품은 세계일류라는 명성을 얻고 있었고 이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호주, 싱가포르 같은 외국의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외국의 전문 산업잡지에 선전을 게재하여 바이어와 대리점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성원전기라는 영문명이 외국에서의 마케팅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 회사의 영문이니셜을 딴 SWECO라는 영문명으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자 외유기 쉬운 이름 덕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자 외국의 경쟁업체에서 각종 견제를 하기 시작했다. 모 업체는 성원전기의 상표가 자기들 상표와 유사하다고 시비를 걸어왔는데, 다행히 성원전기의 상표는 국내에 등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역으로 그들에게 상표가 유사하다면 한국에서도 그들의 상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자 슬그머니 물러서서 해결했다. 한국 시장에서의 덤핑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잘 막아 내고 있다. 현재 성원전기는 연간 약 350만불

을 3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성원전기의 꾸준한 수출성공의 비결을 꼽으라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싶다.

첫째 : 창업시부터 고가 품질 위주의 정책을 펴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

둘째 : 일찍부터 무역부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정보를 얻는데 주력했다.

셋째 : 수출은 반드시 현지 대리점을 통해 거래선과의 마찰을 최소화 했다.

넷째 : 클레임은 즉시 해결하고, 무리한 클레임 제기도 무조건 받아들여 신뢰를 얻었다.

다섯째 : 일찍부터 해외상표 등록, 해외선전 등의 마케팅활동을 계획을 세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성원전기의 수출사례를 성공이라고 하지만 해외 일류업체와 비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국내 취약분야인 발전기와 같은 대형 중전기용 절연물을 개발하여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하는 등 갈 길이 멀고 이러한 노력은 회사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해야한다고 믿는다.

또 하나 수출을 하면서 느낀점은 현지에 생산시설 또는 물류기지가 없이는 현지업체와의 경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원전기는 아직까지 해외생산 또는 물류기지가 없으나 앞으로 좀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의 근거없는 외제선호는 기술개발 및 수출에 아주 많은 악 영향을 준다. 내수기반을 다지기 어려우니 규모의 경제가 어렵고 외국에서도 잘 믿어주려 하지 않는다. 성원전기가 외국에서 받는 평가가 국내에서는 많이 절하된다. 국가적으로 캠

페인을 벌여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성원전기공업주식회사는 국내 유일의 전기절연물 종합 생산업체로서 우수한 기술진 및 연구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ISO 9002 인증을 비롯해 KS 및 다수의 UL규격을 보유하여 선진기법의 품질관리와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며 날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전의 부품, 소재 산업체입니다.

당사는 1974년 설립 이래 한결같이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을 지속해 국내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케이블, 전동기, 전기 및 전자업체에 각종 전기절연물 및 부품을 공급하게 되어 국내 및 해외 25개국에 대리점을 갖고 SWECO라는 해외 브랜드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용인, 구미, 수원 등에 3개 생산공장을 갖고 각 공장마다 제품생산을 전문화하고 특화된 제조설비 및 시험장비를 보유하여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1공장(용인)에서는 GLASS 관련제품을, 제2공장(구미)에서는 MICA 관련제품을, 그리고 제3공장(수원)에서는 CABLE 및 점착코팅 관련제품을 각각 생산하는 공장으로 특화하여 첨단 자동화 설비와 시스템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직원은 앞으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그리고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세계최고, 세계최대의 절연물 전문업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